



“지계는 인욕이 최고”

인터뷰 조계종 전계대화상 청하스님

강조했다. 스님은 “역사적으로 불법이 흥할 때는 계율을 존중하고 수호했으며 불법이 쇠퇴할 때 계율이 잘 지켜지지 않고 문란해졌다”며 “요즘은 어느때보다도 계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이다”고 말했다. 스님은 특히 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오계만 지켜도 나라가 바로서고 불법이

“저는 이제 움직일 수 없게 되어 큰입입니다. 계는 인욕이 최고 아닙니까. 불법이 있어도 참고 미운것도 참고, 먹는 것 자는 것 어느것 할것없이 참아야 해요. 그런데 전계대화상이라는 결말이 주어져 남들보다 앞장서서 인욕해야하니 이보다 더한 구속

수계를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계를 알아 받고 서서 파해도 공덕이 있다는 것은 부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공덕을 뜻하는 것으로 자식으로서 허물은 있을 수 있다”고 지계의 여유로움을 설명했다. 앞으로 3년간 계법을 전하는 회교 계사

“출가자 부처님을 부모님처럼 재가자 부모님을 부처님처럼”

로 활동하게 될 청하스님은 월하스님을 은사로 1946년 입산, 50년 통도사 대교과를 졸업했다. 1964년부터 4대에 걸쳐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65년 조계사 주지 67년 통도사주지를 거쳐 72년부터 5년간 총공회법원장을 지냈다.

또한 통도사 영축총림에서 20여년간 전계회상으로 계법을 전하고 있으며 현재 통도사 부방장으로 있다.

이준엽 기자

‘오계 지키기’ 범국민 생활규범으로

확실했다. 술 먹지 않으면 교통사고 줄어든다고, 음행하지 않으면 문란해진 사회도덕이 바로설 수 있으니 오계 지키기를 범국민적 생활규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스님은 계사라는 딱딱한 이미지와는 달리 온화한 미소속에 간간히 좌중을 웃음바다로 이끌기도 한다.

이 어디있겠습니까. 한바탕 웃음이 가시고, 스님은 “새로 부처님제자가 되는 초심자를 위해 ‘중효(忠孝)’를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출가자는 부처님을 부모님처럼, 재가자는 부모님을 부처님처럼 모셔야 한다”는 것이다. 스님은 또한 “재가불자들이 계를 받으면 지키지 못하는 것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

해인골프장 건설저지 해인총림대책위원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관한 ‘가야산 국립공원 보존을 위한 심포지엄’이 지난 17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은 생태계분야와 문화재분야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가야산 국립공원 보존 심포지엄 지상중계

오구균교수는 생태계분야 주제발표 ‘해인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성 검토와 문제점’을 통해 92년 환경처에 제출한 가야산 개발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대상지역의 생태분포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며 환경영향평가의 재실시를 주장했다. 이태녕 서울대 명예교수는 ‘해인골프장 건설이 팔만대장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서 “팔만대장경 보존상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어떠한 환경변화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정토론자로 나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허권 문화부장은 문화재 보호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세계유산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를 명기하고 이의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대응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전재경 수석연구원은 대법에서 패소하더라도 공소장지가처분신청 헌법소원 등의 법적 대응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생태계 분야 (오구균교수 발표)

해인골프장 예정부지는 가야산 국립공원 전체면적의 2%미만일에도 불구하고 매우 다양한 식물종들이 생육하고 있다. 야생조류는 천연기념물 324호로 지정 보호받는 소쩍새와 쇠독새 철호반새 휘파람새 흰배지빠귀 및 박새 등이, 파충류는 누룩뱀, 양서류는 환경부지정 특종야생동물인 도롱뇽과 북방산개구리 등이 서식하고 있어 서식지 보호가 필요하다.



이태녕박사



오구균교수



가야산 국립공원의 생태계 및 팔만대장경 보존을 위해 해인골프장 예정지를 국기가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야산 환경변화 있을 수 없다”

오구균교수 40여만평 국가 매입등 법적 보호 대책을 이태녕박사 해인사·백운동 골프장부지 ‘같은 기상권’

급 이상은 없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조사 결과 수령 20년 이상의 7등급지역이 43%, 특별한 용도가 아니면 개발이 불허되는 8등급 지역이 4.0%로 나타났다. 사업자측이 녹지자녀도를 고의로 낮게 평가했다.

현존식생 보고에서도 사업자측은 소나무군락 물오리나무군락 등 11개 식물군락을 누락한 채 6개 식물군락만 분포한다고 보고했다. 특히 소나무군락(19.7%)과 물오리나무군락(7.7%)이 넓은 면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에도 누락한 것은 가야산개발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해인골프장 건설은 가야산국립공원의 전체 생물다양성을 크게 위협할 것이다.

개정된 자연공원법의 취지를 살리고 국립공원 보존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40여만평에 이르는 골프장 예정지를 국가가 매입하여 국유화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문화재 분야 (이태녕교수 발표)

고려 팔만대장경은 고종 23년(1236년) 대동강변 외종에서 16년간의 세월 끝에 완성된 신앙의 결정체이며, 민족적 자긍 자주의식이 표출된 상징물이다. 대장경판은 불교의 성스러운 승상의 대승물인 법보로서 양질에 있어서 완전무결에 가깝게 745년간 계승 보존된 세계 유일무이의 문화재이다. 대장경판은 세계가 놀랄만한 자연과 잘 조화된 고려시대 이래의 과학과

기술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승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일광종의 자외선은 이끼 곰팡이 곤충 식물 등 생물의 번식을 막는 작용이 있으며, 일광종의 적외선은 찬 바다 흙먼을 데워서 공기의 대류를 촉진시켜 건물내 온도를 균일하게 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긍정적 면이 있는 반면 자외선과 가시광선의 일부는 목재를 변질시킨다. 이 이율배반적인 일광의 작용은 독특한 경사분지와 기상의 자연환경에 조화되게끔 설계된 장경각과 판기이다.

이렇게 마련된 이상적인 환경에 미소한 영향이라도 미칠 어떠한 환경변화도 팔만대장경 보존상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다. 만일 해인사 주변의 대기의 습도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지하수 지표수자원에 영향을 미칠 대규모의 자연 파괴 시도는 민족문화유산을 보존할 의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골프장 예정지인 백운동과 해인사는 같은 기상권이다. 대장경 보존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정성운 기자

시론

보름달을 보는 마음

이제 얼마있으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중추절인 한가위이다. 이런 풍요로운 날, 인심이 일년중 가장 후하다는 날을 맞이하면서, 웬지 금년엔 그 풍년스러운 인심에 내심, 안스러운 감이 들기도 하다. 연일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우리의 경제이슈가들을 보노라면 더욱 그러한 감정을 가릴수 없다.

최근의 우리경제는 소비용 구조에 따른 몰살을 앓고 있다. 고임금, 고금리, 높은 땅값 그리고 높은 유통과 물류비용, 국민들의 높은 과소비, 거기에다가 높은 정부의 규제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삼한고(高) 자에대한 열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쪽은 그래도 정부이다. 경제가 어떻게 될때까지, 이러한

경제위기에 나오는 3대 생산요소인 노동·자본·토지가 무색하게 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런 경제문제를 생각해 보게 된다.

우리경제가 어렵다. 성장도, 물가도, 국제수지도 정상상태를 이탈해서 질주하고 있는 것 같다.

기업들은 우리가 불모의 땅이라도 되는지, 해외탈출구를 벌이고 있다. 정말, 이러다가 우리가 모두 텅빈 공간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해 본다.

경제가 어려워 지니까 진단도 참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도 한다. 정치와 사회적분위가 기업마인드를 위축시켜서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근원적인 진단과 처방은 경제력의 약화라는 구조에서 찾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 본다.

이러한 고비용, 저효율구조가 근원기때문에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치료가 어렵다는 것이다. 분명 우리의 경제는 이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살아나가기 힘들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이런 병을 치료하려고 하기 전에 자세히, 그 병의 원인을 관찰해 보자.

전경련에서 주요그룹들이 임금을 동결한다고 선언을 했다. 사실 우리의 임금구조를 보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또는 일을 하든 안하든 편중했다. 그러나 생산성을 반영할 수가 없는 구조다. 그러다보니 인건비는 비싸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우리의 제품들이 기술면

에서나 품질면에서 좋으려면, 그렇지 못하다. 상품도 그런데 거기에 들이는, 생산비가 많으니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생산효율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제 국제 시장에서 성장하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우리의 경제병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만 돈만되면 그만이라는 천민자본주의에 젖은 일부 기업주나, 당장 오늘날 좋으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대처를 해온 경영자들이 오늘과 같은 문제를 잉태 시켰다고 본다.

거기에 고도성장기의 상대적 박탈감을 어떤 식으로든지 보상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근로계층들의 사고 또한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쪽은 그래도 정부이다. 경제가 어떻게 될때까지, 이러한

사실에 대해 국민을 위한 생각 보다는 우리나라의 흥보에 만 전력을 다하면서, 임금의 급상승을 유발시켰다고 본다. 수출 세계 몇 위니, 올림픽 몇 위니 하는 구시대적 등수를 통한 홍보를 함으로서 마치 우리가 실제 세계의 몇위권 안에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우리 모두가 임금의 상승을 위해 힘을 모았으며, 그 결과는 과소비까지 이

어졌던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한가롭게 누구를 탓하거나 수수방관을 해서는 안된다.

식량난 北동포에 관심은

시장경제 원리와 자본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와 사고를 빨리 버리고 논리와 원칙을 고수하면서 새로운 경제질서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어렵다 어렵다 하면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제는 풍요로운 중추절도 다가오고 있으니, 보름달 같은 넓고 둥근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를 한번 해 볼때가 아닌가 한다.

우리가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하더라도, 북한국민에 비할수 있겠는가. 또 어려움을 극복하기로 말할것 같으면, 우리민족같이 잘 극복하는 민족도 없다. 차체에 식량대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북녘동포를 한번더 생각해 보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중추절, 한가위 보름달을 보는 우리의 가슴이 확 트일 것이다.



전정봉 (연세대 교수·경영학)

해인강원 총동문회 결의문

우리 해인 강원 총동문회 회원 일동은 평소 해인강원과 총림의 법륜상전을 기원하며 지내오던중 뜻하지 않은 해인강원의 폐장을 당하여 해인총림의 원용살림회복과 강원도의 정상회복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 총림방장스님은 주지 이하 7직을 즉각 해임 하실 것.
 - 해임 되지 않고 전개되는 사태에 대하여 그 책임은 방장스님에게 있다.
- 중앙총회는 총림의 원용체제가 이룩될 수 있도록 총림법을 개정하라.
- 총무원과 교육원은 안정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교육법을 강화하라.
- 해인사 사중은 해인골프장 건설 반대의 분명한 입장을 천명하고 매진하라.
- 이상의 결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800여 해인강원 총동문들은 해인강원 정상화와 총림의 원용살림체제가 회복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불기 2540(1996)년 9월 17일

해인강원 총동문회장 보광외 회원일동